

혼례때 신랑·신부 꽃 다섯송이 올려

불교식 애경사 예법 순서·절차

생로병사의 테두리 속에 여러 경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인간 삶의 모습이다. 생일, 결혼, 장례 등의 통과례 때 불자로서 어떠한 예를 갖추고 싶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기란 쉽지 않다. 각 경조사 때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교식 예법의 주요 절차들을 살펴보자.

감사와 다짐 발원

● 생일
△삼귀의 △찬불가 △경전봉독 △정근 및 발원 △생일축가 및 선물 증정 △떡이나 케이크 절단 △사후서원
생일을 맞은 당사자는 감사의 말과 함께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등의 다짐을 발원한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함께 반야심경이나 법구경 등 불경 구절을 읽으며 축하의 의미를 전한다. 만약 스님이나 법사가 참석했다면 생일의 기쁨을 타인을 위해 회향하려는 축하법문을 한다.

● 결혼
△양가 부모 등 하객 입장 △인례(사 회) 등장 △삼귀의 △신랑 신부 소개 △현화 △고유문(告由文) 낭독 △삼경례(신랑신부 맞절) △예물교환 △발원문 △축원 △사후서원 △내빈개 인사 △행진
불교에서는 결혼을 꽃 인연을 맺는다는 뜻으로 '화혼(華婚, 花婚)'이라 한다. 따라서 불교식 혼례에는 신랑과 신부가 각각 다섯 송이 꽃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한화순서가 반드시 포함된다. 부부가 함께 서로의 사랑과 보살행 실천을 다짐하는 발원문을 낭독하는 순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흔히 알고 있는 '주례'는 본래 화혼식에 포함돼있지 않다.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한국 전통 혼례 및 불교의식에 전통적으로 주례의 개념이 없다"며 "주례보다는 양가 부모님과 당사자, 부처님의 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회자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랑·신부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는 법문이나 축원으로 주례를 대신할 수 있다.

● 집들이 및 개업
△삼귀의 △찬불가 △경전봉독(반야심경 등) △관세음보살 정근 △발원 △사후서원
집들이나 개업 등 새로운 출발에는 가족과 친지가 함께 모여 앞으로의 안녕과 번창을 기원한다. 불자답게 육식 없이 바른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부처님 말씀한 구절을 함께 되새겨 보는 것도 좋다.

약사여래 정근하기

● 문병
△삼귀의 △경전봉독(약사경 또는 천수경) △약사여래 정근 △약사여래 12대 원 낭독
문병 시에는 무엇보다도 종교적 신심을 통해 환자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쾌유를 위해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중생의 병을 치유해 준다는 약사여래 정근을 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정과 심념(十念: 부처님 명호를 열 번 염한다)을 함께 하기도 한다.
● 조문
△입정 △심념 △경전봉독(영가전제 또는 무상계 특경) △아미타불 정근 △왕생극락 발원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스님을 따라



한 불자 부부가 육법공양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불교식 혼례를 올리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시타립(장례 전에 행하는 의식) 의식에 참여하거나 경전을 독송한다.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법성계, 무상계, 영가전제 등을, 시간이 넉넉하면 아미타경이나 금강경을 독송한다.

스님에 따라 달라

● 장례
△개식 △삼귀의 △입정 △청혼 △착어(망자를 안정시키는 법문) △반야심경 △법문 △고인약력 소개 및 생전육성(법어) 정취 △영결사 △현화 △추도의 노래 (미타의 품에 안겨) △왕생극락발원문 △사후서원
장례의식은 집전을 맡은 스님과 법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고인의 넋을 기리고 다음 생애 더 좋은 인연을 만나도록 기원하기 위해 불행한다는 목적은 같다. 영결식, 발인, 화장 등의 모든 장례절차가 끝나면 절에서 반혼제(返魂祭: 매장을 마친 뒤 영가를 집으로

경조사 봉투엔 경전구절 인용을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할 때 봉투 겉면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축 화혼(祝 華婚)', '근조(謹弔)' 등이 있지만 너무 흔하다. 좀더 불교적인 표현을 하고 싶다면 짧은 선구(禱句)나 사구계를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결혼 축의금을 전달할 때는 화경정적(和敬淸寂: 서로 화합하고 상대를 공경하며 마음을 맑게 가지는 것을) 써 부부의 앞날에 화복을 기원한다. 조의금을 전달할 때는 '극락왕생',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제행무상(諸行無常)' 등 고인을 기리는 동시에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구절을 적는다. 취입이나 이사, 개업 등 시작하는 이의 발원을 기원하는 카드를 전달할 때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등이 적합하다.

고우익 박사(불자신행의 길잡이) 저자

지구촌 무대로 불법 전파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8>

국제포교사 이태길씨 가족

가족 5명 중 4명이 국제포교사인 가족이 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교포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에서만 실력을 연마해 영어와 불교 두 가지 공부 모두 값진 결실을 얻어낸 이태길(61·페어차일드 코리아 상무) 씨 가족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01년 11월 나란히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딴 이태길씨 가족. 왼쪽부터 큰 딸 이영남 씨, 태길 씨, 부인 박미자 씨.

이 씨 가족은 그를 비롯해 부인 박미자(58·출신 사문사수 회원), 첫째 딸 이영남(31·미국 미시간주립대 생물학 박사과정), 둘째 딸 영희(28·회사원)씨가 모두 국제포교사다. 막내아들인 정우(24·한국외대 경영학과) 씨도 대학생활 동안 각종 국제 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예비 국제포교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씨의 가족은 모두 수준급의 영어 구사능력을 갖춘데다 각자 일본어, 아

다. 이듬해에 이 씨는 일본어로 다시 도전했고 이 때는 둘째 딸이 아버지와 나란히 7기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했다.

국제포교사가 된 이후 부부는 매주 토요일 이 씨가 회장으로 있는 문사수회 활동을 위해 봉은사를 찾는다. 문사수회는 봉은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어는 기본, 일어·아랍어 수준급 美 유학 큰딸 영남씨도 포교활동

사찰과 불교를 통하여, 전법하는 봉사단체다. 이 씨는 또 격조로 산본 정각사에서 국제포교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영어스터디 그룹의 교리공부를 지도하고 있다. 현재 미시간대에서 유학 중인 큰 딸 영남 씨도 학업생활 틈틈이 불법을 전파하고 있다. 국제포교사 준비를 하며 배웠던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개인교 중심의 미국사회에서도 정체성과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넓은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지구촌 시대에 가장 뛰어난 국제적 감각입니다. 이를 한국사회 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이태길)
이 씨는 부끄럽지 않은 불자가 되기 위해 봉은사 거사대학을 다니는 등 교리공부를 시작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 박 씨와 두 딸들도 자연스럽게 이 씨의 늦깎이 공부를 따르게 됐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11월 두 부부와 큰 딸이 국제포교사(영어) 6기 동기생이 됐

다. 이듬해에 이 씨는 일본어로 다시 도전했고 이 때는 둘째 딸이 아버지와 나란히 7기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했다.

한상희 기자

女 예비창업자 인터넷쇼핑몰 교육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인터넷쇼핑몰 경영교육'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한다. 온라인기반사업이나 쇼핑몰 운영 및 관리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현장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031)283-9211

안양 여성의 전화 성폭행 상담교육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는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안양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성폭력전문상담교육을 실시한다. 여성에게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성학, 성폭력 실태와 대책, 집단상담 및 상담이론, 법률구조 등의 이론수업과 상담실습을 진행한다.(031)442-5385

세계여성의 날 맞아 노동영화제 열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서울, 인천, 부산, 안산, 광주, 마산, 창원,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여성노동영화제를 연다. 서울영화제에서는 3월 2-6일 서울 서교동 '페어프루추'에서 '먼저 달인 인형(태국) 등 총 25편을 상영한다. 입장료 3000원. (02)325-6822

간(肝)

간염,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음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 삶은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핵을 제거한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미술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달인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청이리에 넣고 97가마니를 달인 뒤 원경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양숙에 문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경이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양!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공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께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엔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효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 만성위염이 나아졌다.
- ◆ 사지무력증이 나아졌다.
-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 전신이 떨어졌다.
- ◆ 손발 저린 것이 없어졌다.
- ◆ 돌에 부기가 빠졌다.
- ◆ 인파선이 나아졌다.
- ◆ 자궁 목욕이 없어졌다.
- ◆ 빈혈이 나아졌다.
- ◆ 혈색이 좋아졌다.
- ◆ 기력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영기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려주시고, 단, 10kg 인외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인양(만삼생것10kg, 왕기, 잔대, 삼지구엽초, 영강, 대추, 곱조)

- 1Box × 60포: 20만원 ■ 2Box × 120포: 35만원

● 주 소: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심정택 H-P 011-9242-8292
● 농업계좌번호: 315024-52-012392 (예금주: 심정택)

당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한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화 식품입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과 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일반·당뇨·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책임임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장애, 비만증, 무릎,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갱년기 장애
- 고혈압, 고지혈증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승복법복인네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특장 - 울 50% 폴리에스테일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면 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곱 덴: 면 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대구 중구영남면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 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